

나주, 체감형 출생 친화도시 도약 '청신호'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 기록...3년 연속 증가세 전국 평균 '0.8' 웃돌아...임신부 등록 수도 증가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에서 나

주시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출생아 수는 2022년 680명에서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2025년 79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신부 등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843명을 기록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출생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난임 치료 지원,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와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이후 단계에서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장려금 확대와 학령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4

호점 운영,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등을 통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함께 증가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생지원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보성군-몽골 우브르항가이드, 농촌 인력난 해소 '맞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협약 체결...농업 인력공급망 구축

보성군과 몽골 우브르항가이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몽골 우브르항가이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우브르항가이드 도지사 권한대행인 M. 바트조리 부지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계절근로자 선발 및 사전 교육, 입국 후 체류 관리, 근로자 인권 보호, 사후 관리·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 전 과정에 대해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또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 몽골 대표단은 회천면 전일리 일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농가와 숙박시설을 둘러보고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인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절근로자 운영과 함께 문화·교육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력 교류를 넘어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업 인력난이라는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다"며 "근로자와



보성군은 최근 몽골 우브르항가이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보성군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화순 만원임대주택 신청 열기 '후끈'

최종 추첨 대상자 263명 선정...경쟁률 11.4대 1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에 총 331명이 접수하며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재입증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만원임대주택 1차 모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공실 물량 23호를 대상으로 청년 유형에 한해 모집했다. 접수자 331명 가운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추첨 대상자로 263명이 선정되면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대 별로는 19세 이하 1명, 20세 이상 29세 이하 140명, 30세 이상 39세 이하 101명,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21명으로 집계돼 29세 이하 신청자가 가장 많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군은 오는 1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추첨 대상자와 추첨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청년들이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여수, 구직 단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선정...국비 3억4700만원 확보

여수시가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47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공모 선정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수혜 기관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사례관리,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취업 연계·사후관리 등 단계별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모집인원은 78명으로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18명), 중기(15주,

39명), 장기(25주, 21명)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45세 이하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과정 유형에 따라 이수 및 구직 활동과 취·창업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미래산업기술진흥원(061-691-92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지난해와는 달리 꽃이 만발하는 화사한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사진은 광양 청매실 농원 모습.

사진제공=광양시

"새봄의 전령 매화가 피었습니다" 광양매화축제 꽃 만발

시, 개최 한 달 전 일정 확정 주호... 13~22일 개최

제25회 광양매화축제는 지난해와는 달리 꽃 만발하는 화사한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담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매화축제는 현재 70%의 매화가 피어나 축제가 시작되는 13일부터 끝나는 22일까지 10일 간 매

화가 만발하는 축제 분위기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화 정원을 연출하는 청매실농원은 현재 하단부는 70% 이상 만개하고 상단부는 꽃망울을 머금고 있어 축제 기간 내내 꽃이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꽃 만발하는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해까지 광양매화축제위원회가 축제 시기를 개최 2개월 전에 확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최 한 달 전에 확정, 개최 시기를 적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녀의 봄소식인 매화를 보려는 상춘객들이 지난해처럼 꽃이 피지 않아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축제는 기간 내내 30% 정도

개화에 그쳐 꽃 없는 축제가 만들어져 경향 각지에서 찾아온 상춘객들에게 불만과 실망만을 안겨줬다. 시 관계자는 "진해군항제 빛꽃축제처럼 개최 시 한 달 전에 일기를 봐가면서 축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 개최기에 적중한 것 같다"며 "봄나들이 하는 상춘객들이 실망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영광,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 추진

총 600필지 대상...적극 행정

영광군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은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중 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합병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인해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in98@



영광군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영광군